

# 경남·북지부장 달성지부에 자돈 11두 기증



흔히 경상도 사나이들을 박력있고 무뚝뚝한 것이 매력이라고 하지만 “뚝배기보다는 장맛” 이라듯이 훈훈한 인정 또한 그에 못지 않으리라.

경상남·북도에는 대한양돈협회 산하 경북도 협의회 및 2개 지부와 경남도협의회 및 8개 지부가 설립되어 있다.

경남·북 지부장들은 지난 84년 6월23일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단합과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한다」는 목적아래 최상백 마산지부장을 친목회장으로 선출하고 「경남·북 지부장 친목회」를 발족시켰었다.

발족당시엔 회원이 12명이었으나 현재는 16명으로 늘어났다.

친목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그동안의 돼지가격, 사료, 도매시장 실태 등 양돈산업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토론함은 물론, 또 각 지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지난 85년 12월의 정기모임에서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이 “현재 지부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달성지부를 돕자”는 제의를 했다. 이 제의를 받은 친목회원들은 모두 이에 찬동하여 양돈을 하는 사람들인만큼 1인당 자돈 1두씩 기증하자는 최상백 친목회장의 제의를 받아

들었다.

그후 최상백 친목회장과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은 지난 1월 24일 회원들이 기증한 자돈 11두와 현금 10만원을 달성지부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영옥 달성지부장에게 전달했다.

달성지부는 기증받은 자돈을 길러서 지부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고 이승만 박사의 뜻을 되새겨 나하나보다는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회원들이 똘똘 뭉친다면 협회의 발전은 물론, 양돈인들의 권익보호와 양돈산업의 장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기증자 명단 <글·대구지부 김노식>

경북 : 조옥봉 경북도 협의회장

이광우 영천지부장

경남 : 박재근 경남도협의회장

최상백 마산지부장

한문수 고성지부장

민영만 산청지부장

윤혁태 밀양지부장

신태식 前 김해지부장

박대관 울산·울주지부장

차인고 양산지부장

임한상 진주지부장